



미 증시, 중국 경기 부진, 사우디 감산 연장 등에 약세

미국 증시 리뷰

5일(화) 미국 증시는 중국 서비스업 PMI 부진,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, 인플레 상승 우려 및 시장금리 재상승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약세 마감 (다우 -0.56%, S&P500 -0.42%, 나스닥 -0.0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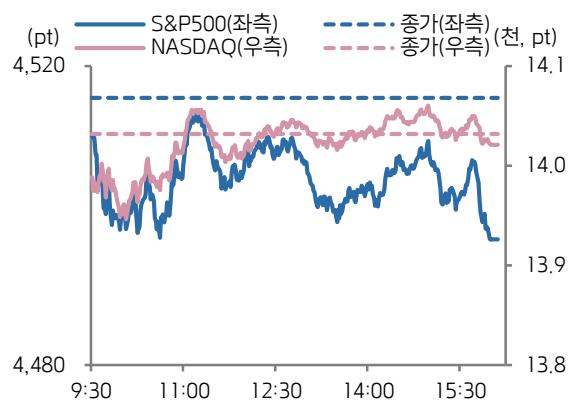
월러 연준이사는 금리인상을 빠르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가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"데이터를 기다릴 수 있을 것"이라고 언급. 지난 지표에 대해 "연속해서 두 번 좋은 보고서를 봤다"면서도 "우리가 금리인상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, 한번 더 인상하는 것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"고 언급.

사우디는 올해 연말까지 하루 100 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. 일각에서는 감산이 연장될 경우 10~12 월까지도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되며, 하반기 중국 수요 증가 전망과 맞물려 공급 부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. 러시아 역시 8 월 50 만 배럴 감산에 이어 이달에도 하루 30 만 배럴씩 석유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.

미국 7 월 제조업수주는 MOM -2.1%(예상 -2.5%, 전월 2.3%), 운송을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0.8%(예상 0.1%, 전월 0.3%) 기록. 유로존 8 월 서비스업 PMI는 47.9(예상 48.3, 전월 48.3) 기록하며 부진. 7 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-7.6% (예상 -7.6%, 전월 -3.4%) 기록하며 낙폭 확대. 중국 8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1.8(예상 53.8, 전월 54.1)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고 5 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중최저치 기록. 집계측은 해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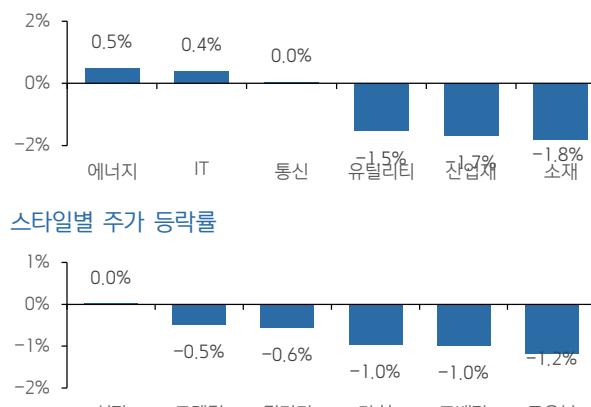
EU 는 올 11 월 디지털시장법(DMA) 시행을 앞두고 '게이트키퍼' 플랫폼 명단을 지정하면서 애플의 '아이메시지'와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검색엔진 '빙'의 채택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. 시가총액 750 억 유로(약 107 조 원) 이상, 월간활성 이용자수(MAU) 4500 만 명 이상인기업 서비스를 게이트키퍼 요건. DMA 상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도 상호 호환되도록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% 벌금 부과. 현재 구글 검색엔진, 메타의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·왓츠앱,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은 이미 규제대상으로 확정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82.18	-0.09%	USD/KRW	1,330.77	+0.87%
코스피 200	340.29	-0.21%	달러 지수	104.78	+0.52%
코스닥	921.48	+0.25%	EUR/USD	1.07	+0.01%
코스닥 150	1,440.69	-0.6%	USD/CNH	7.30	-0.04%
S&P500	4,496.83	-0.42%	USD/JPY	147.69	-0.02%
NASDAQ	14,020.95	-0.08%	채권시장		
다우	34,641.97	-0.56%	국고채 3년	3.765	+3.3bp
VIX	14.01	+1.37%	국고채 10년	3.887	+3.2bp
러셀 2000	1,880.45	-2.1%	미국 국채 2년	4.960	+8.1bp
필라. 반도체	3,683.79	+0.03%	미국 국채 10년	4.260	+8.1bp
다우 운송	15,488.72	-2.19%	미국 국채 30년	4.370	+7.7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69.16	-0.25%	WTI	86.69	+1.33%
MSCI 전세계 지수	683.97	-0.6%	브렌트유	90.05	+1.18%
MSCI DM 지수	2,973.45	-0.56%	금	1952.6	-0.74%
MSCI EM 지수	985.84	-0.97%	은	23.56	-2.78%
MSCI 한국 ETF	62.76	-0.71%	구리	381.1	-0.0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71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81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9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29.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국제 유가 강세, 금리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

주요 체크 사항

2.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 개선시킬지 여부
3. 장중 10년물 금리 및 국제 유가 흐름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현재 미국 채권시장의 변동성 측정하는 지표인 MOVE 지수는 전일 대비 6% 급등한 109pt 를 기록하긴 했으나, 이전에 비해 일정부분 레벨 다운된 상태(연중 최저는 2 월 2 일 97pt, 연중 최고는 3 월 15 일 198pt). 하지만 10 년물 국채 금리가 8 월 후반에 심리적인 1 차 저항선인 4.3%대를 상회한 이후 좀처럼 4.2%(6 일 현재 4.26%)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고금리 부담이 점차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.

최소 9 월 FOMC 까지는 금리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,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 10 년물 금리의 전고점(8 월 21 일 3.34%)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지를 둘러싼 불안과 마주하고 있는 실정.

이전 고점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다 추후 금리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, 정황 상 10 년물 금리 4.5%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레벨인 것으로 보임.

이는 9 월 4 일 블룸버그에서 약 330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증시 서베이에서 확인할 수 있음. 해당 서베이에서는 하나의 가정으로 10 년물 금리가 4.5%에 도달했을 때 응답자들의 약 20%는 “10% 이상의 폭락(S&P500 지수 기준)”을 겪을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, 응답자들의 약 56%는 “10% 미만의 조정”, 약 24%는 “현재의 상승세 지속”이라고 답변.

향후 주식시장이 8 월 CPI 혹은 9 월 FOMC 를 겪으면서 조정 압력이 발생하더라도, 10 년물 금리가 4.5%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 이상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. 또 연말까지 감산연장을 결정한 사우디의 발표로 WTI 유가가 86 달러를 상회하면서 공급 측면의 에너지발 인플레 압력을 가하고 있기는 함.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은 소비 및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하락 압력도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(유가 7 월말 80 달러 → 9 월 현재 86 달러 vs 10 년 기대인플레이션 7 월말 2.39% → 9 월 현재 2.30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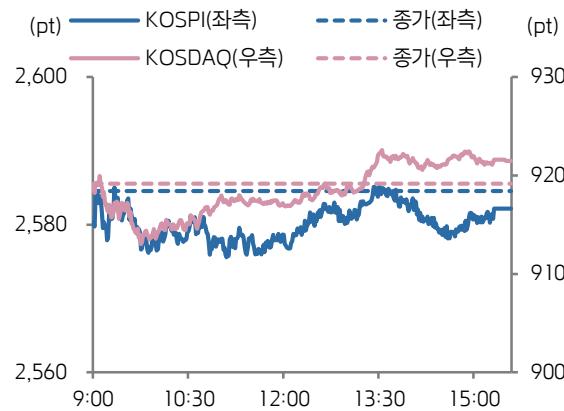
결국 금리와 유가의 변동성이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긴 하지만, 지금 시점에서 지수 하방 베팅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. 다만, 상기 서베이에서 금리 4.5%대 진입했을 경우 미국 증시 내 수혜 업종으로 은행(57%), 에너지 및 소재(23%)를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 시,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9 월 중 관련 업종들을 포트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.

전일 국내증시는 장중 10 원 급등한 원/달러 환율 부담에도 외국인의 1,000 억원대 순매수가 이어진 가운데, 반도체 및 2차전지 부진 속 AI, 로봇,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(코스피 -0.1%, 코스닥 +0.3%).

금일에는 산유국 감산 연장에 따른 유가 강세, 연준 긴축 경계 지속에 따른 금리 상승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도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(+0.03%), 나스닥(-0.08%) 등 양호하게 마감한 미 증시를 반영하면서 약보합 출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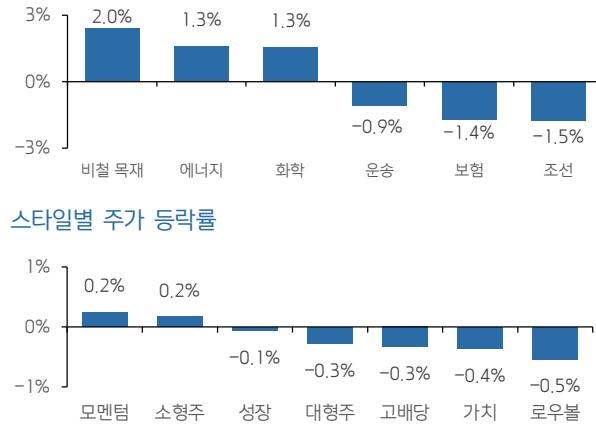
금일에도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만큼 업종이나 테마 내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. 이런 관점에서 미국 테슬라(+4.8%)이 최근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성 우려에도 중국 내 8 월 인도량 증가 소식(MoM +31%, YoY +9%)으로 급등했다는 점은 국내 이차전지,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켜 줄 것으로 판단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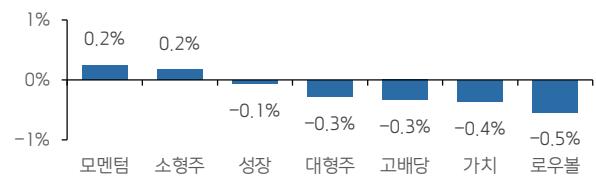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Compliance Notice	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	
고지사항	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	